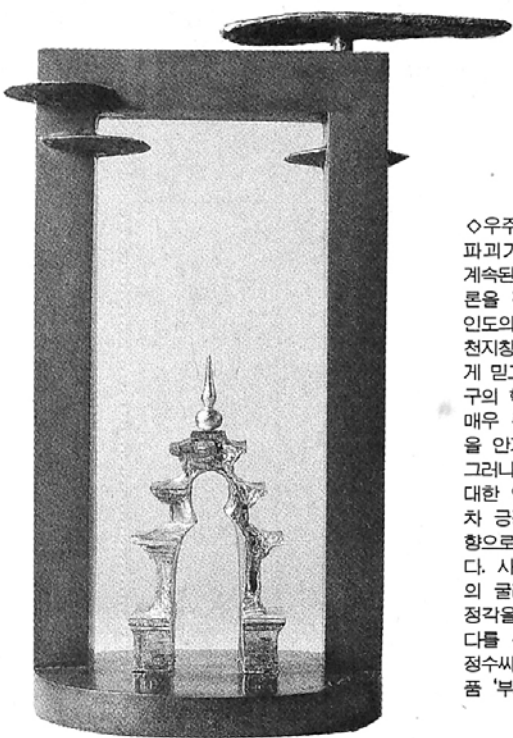


# 부처님 가르침 “모든 행위 상벌씨앗 간직”

데이비드 혹은 율화설이아말로 철학이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이론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영혼이 미래에도 불멸한다는 교설은 동일한 논리로 영혼이 과거에서도 존재해 왔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보았다. 쇼펜하우어는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의지'이며, 세계의 모든 사물의 모습은 그 의지의 표상이라고 보았다. 그는 영원하고 편재(遍在)하는 그 존재가 지속적으로 세상에 나타난다고 신화화된 이론이 율화설이라고 보았다.

인도의 율화설은 우주의 창조와 파괴가 끝없이 계속된다고 하는 우주론을 전제로 하고 있다. 우주가 반복해서 창조되고 파괴된다는 이론은 무엇보다도

겉(劫)의 세월들이 모여 다시 세계의 주기를 만드는데 첫번째가 황금의 시대(Krita-Yuga)로 4,000신년(神年)동안 지속되고, 두번째는 은(銀)의 시대(Treta-Yuga)로 3,000신년(神年)을, 세번째로 동(銅)의 시대(Dvapara-Yuga)로 2,000년을, 네번째는 철(鐵)의 시대(Kali-Yuga)로 1,000신년동안 지속된다고 한다. 이런 복잡하고 거대한 연대학(年代學)은 대략 리그베다 시대(기원전 10-12세기)와 마하비라타 시대(기원전 4-2세기) 사이에 만들어졌다. 인도의 고대 서사시 마하비라타에는 전사(戰士), 마술사, 문법학자로 등장하는 유명한 원숭이왕(王) 허누만(Hanuman)이 복잡한 연대학을 정리하여 체계를 세우는 장면이 나



우주의 창조와 파괴가 끝없이 계속된다는 우주론을 전제로 한 인도의 율화설은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고 있던 서구의 학자들에게 매우 큰 당혹감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율화설에 대한 인식은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리잡았다. 시인은 율화의 굴레 속에서 정작을 이룬 붓다를 상징한 심정수씨의 조각작품 '부처'.

##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윤 회 ②

### 유일한 존재는 '의지'... 사물은 '의지의 표상' 쇼펜하우어 일회성 창조설 부정... 서구 학자들 긍정적 인식

우주의 절대적이고 일회(一回)적인 창조설을 부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다. 이 사실에 접한 서구의 학자들은 혼돈스러워서 매우 당황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약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설을 정면으로 부정하기 때문이다. 창조에서 파괴로 이어지는 한 주기는 일갈년(Kalpa)동안 지속된다. 거의 무한한 시간인 겉의 단위를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인도의 경전들은 흔히 다음의 비유를 든다.

여기 3만미터의 바위산이 있다. 백년에 한번 베나레스에서 한 뿌러러운 비단천으로 그 바위산을 스친다. 이렇게하야 바위산이 완전히 닳아 없어지기 전에는 일갈의 시간이 다 흐르지 않는다. 글세 최근의 천문학에서 사용하는 아질한 단위로 이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 같다.

서구인들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장구한 시간단위에 인도인들의 정신은 익숙해져 있다. 기원후 2세기 프랑소 리옹의 주교였던 유명한 신학자 이레네오(Ireneo)는 창세기의 6일간에서 힌트를 얻어 우주의 역사가 6천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계산했다. 말세론(末世論)인 인도인들에겐 우주가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브라만신의 세계에도 밤과 낮 그리고 해(年)가 있다. 그러나 브라만신의 하루는 인간의 43억2천년에 해당한다.

### “과실나무에서 열매가 맺고 땅에서 곡식이 자라는 것은 인간의 공덕에 의한 윤리유지법”

라디하르티슈나

위에서 말한 세계의 시대에서 각각의 시대마다 인간의 수명, 키, 윤리가 다르다. 뒤로 갈수록 수명이 줄어든다. 황금의 시대에선 모든 인간들이 신처럼 오래 살았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맨 마지막 철의 시대다. 브라만 신도 영생(永生)하지 않고 수명이 있다. 그는 96,000년을 산다. 그가 죽으면 다른 브라만신이 태어나 다시 끝없는 창조와 파괴의 놀이를 계속한다.

새로 태어난 브라만신은 먼저 자신의 공덕을 짓는다. 거대한 공덕은 그러나 비어 있어서 쓸쓸하다. 브라만신은 다른 신들을 창조한다. 그 뒤 메루산, 대지, 인간과 지옥을 창조한다.

불교에서 겉(劫)은 부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 두시대로 나뉜다. 공겁(空劫)시대에는 부처님이 탄생하지 않는다. 불겁(佛劫)시대에는 연꽃이 피어 보리수아래에서 정각을 얻은 성자의

탄생을 알린다. 만일 인생에서의 탄생이 전생의 업보라면, 앞으로 계속해서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건 의사의 여지가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수많은 전생을 전전하며 오로지 살아왔지만 해탈을 얻어 열반(Nirvana)에 들기만 하면 미련을 없애야 할 수 많은 삶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 사바타 고포도 없는 삶의 수레바퀴 속에서 인간은 허망한 부침(浮沈)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전생(前生)의 행위가 이 생을 결정하고, 이 생의 행위가 내생(來生)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다음 생을 결정하는 행위를 인도 철학자들은 업(業, Karma)이라고 정의했다.

이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만들다' 혹은 '창조하다'를 의미하는 '크리(Kri)'에서 파생되었다. 업은 우리가 끊임없이 짜나가는 천(織物)과 같은 것이다. 한

사람의 모든 행위, 말, 생각 그리고 어떠한 꿈까지도 사후(死後) 그의 다음 생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가 받을 몸과 운명은 모두 전생의 업에 달린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지니고 있으면, 그것이 씨가 되어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한다.

라드하르티슈나는 업을 '윤리유지법(倫理維持法)'이라고 정의했다. 인과응보(因果應報)를 윤리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한편 매 우주의 주기마다 그 우주의 산, 강, 대지, 바다, 숲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은 전(前) 우주 때의 인간의 행위라고 한다. 과일나무에서 열매가 맺고, 땅에서 곡식이 자라는 것은 모두 인간의 공덕(功徳)에 의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지리(地理)는 윤리의 투영(投影)이다.

업의 작용은 비인격적이다. 상과 벌을 판결하는 판관신(判官神)은 존재치 않는다. 모든 행위는 상이나 벌의 씨앗을 안고 있다. 그 결과가 행위 후 즉각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그것을 피할 도리는 없다.

번역: 김 홍 근 (의대강사·문학평론가)



산모퉁이 바로 돌아 송학사 있거늘 무덤그리 갈래갈래 깊은 산 속 해냈다.

인간은 언제나 바로 옆에 있는 보물을 보지 못하고 먼곳에서 얻으려고 한다는 말이 있다. 20여년전에 불러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송학사'란 노래도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다. 송학사가 어디에 있는 절이냐고 물어오면 나는 언제나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절입니다"라고 대답한다. 마음 속의 절, 그곳이 아말로 우리가 달려 가야할 지리란 생각에서, 노래의 마지막을 '어서 달려 가보세'의 반복으로 부른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나는 노래하는 사람이다. 군생활을 마치고 다시 생활현장으로 돌아 올 무렵 나는 삶과 죽음을 인간의 본질, 추한 것과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다. 그

김 태 곤 (가운)



서 간염과 싸워야 했고 그 싸움은 짧은 나를 다시 바다로 내몰았다.

5월에 다시 완도로 나아갔다. 제주 함덕까지의 요트 횡단을 기어이 이뤄야 내가 살아있는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내 머리를 지배하고 있었다. 뒤에 비상선이 따라 오지만 홀로 요트에 올라 바람과 물과 싸우며 제주를 향해 물길을 잡아야 했다. 그때 나는 몸에 아무것도 지니지 않았다. 다만 목에 108염주 하나를 걸고 있었다. 4월의 항해에서는 우리 나라최초의 제주해협 횡단이란 기록에 대한 욕심이 컸던게 사실이었지만 결국 그러한 욕심을 알아낸 바다는 가차없이 내게 실패의 아픔을 안겨 주었다. 두번째

### '송학사' 사람들 마음에 지은 절 제주해협 요트횡단 통해 집착 끊는 '인내공부'

나이에 누구나 한번쯤 빠지게 되는 상념의 여로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깊은 생각에서 나는 불교를 보다 가까이 만날 수 있었다. 우리 고유의 것 즉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만난 불교는 내 삶의 좌표를 확고하게 지탱해 주었다. 교리를 공부하고 참선도 해 보던 83년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석주스님(철보사 조실)께 전법사 품수증까지 받게됐다.



항해에서 나는 목에 건 염주 하나에 모든 것을 걸었다. 사전 답사나 훈련은 이미 승패의 요인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은 바다위에 떠 있는 내가 아니라 내 속의 또다른 나란걸 잘 알고 있었다.

오전 10시에 완도를 떠나 남해의 질주론 물위로 나는 흐르고 있었다. 두 손에

잡은 것은 로프라기 보다 바람을 다스리는 생명줄이었고 두발 아래에는 물을 다스리는 생명줄이 하나 있다고 생각했다. 목에 걸린 염주, 오직 그 염주가 남해를 떠흐르며 지력을 이끌러 가듯, 제주 함덕해변으로 나를 데려 가고 있다고 믿었다.

8시간의 항해는 그렇게 나를 버리고 나를 잃고 나를 잃어 버리는 시간이었다. 그 시간이 지남위 바다는 내게 성공의 영광을 안겨 주었다. 아려오는 교통사고 후유증을 바다와 바람과 염주와의 대화로 극복한 댓가로 나는 제주해협 요트횡단의 첫 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

그 항해는 산모퉁이를 바로 돌면 송학사가 있듯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 땅에 대한 집착만 버리면 무슨 일든 이룰 수 있다는 소중한 가르침을 온 몸을 바다에 던져 배운 소중한 수행의 한 과정이었다.

**佛事 (불사)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신비의 불탑다라니" 책자를 스님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佛塔다라니 자체에서 약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주는 강력한 힘이 발산되어 임종준 본회의 불탑다라니 <금강경 신탑다라니>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2종류(佛塔)를 사용함으로써 인체(人體)와 영계(靈界)에 파장되는 기(氣)의 흐름을 제지하여, 길흉화복을 판단할 수 있고, 조상영을 판단하여 율을 좋게 변화시키고 또한 불탑다라니로서 영(靈)을 천도시키는 방법들이 수록된 귀중한 정보책자를 현재 사함을 운영하시는 스님께만 1권씩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 방법은

- 신도 개개인의 현재의 율과 그 신도의 남편, 부인, 자식, 부모, 형제들의 운까지도 그 자리에서 직접 확인해볼 수 있고 이 방법으로 스님께서 신도들의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바꾸어줄 수 있으며
- 영가의 병의상태, 관념과장의 방해를 확인하여, 영가의 병의및관념과장을 천도, 차단하는 원리를 보여줄 수 있으며
- 신도들의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여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방해 줄 수 있으며
- 산소에 달이 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산소를 잘못 써서 조상영이 천도되지 못하고, 그래서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어느 산소이든 그 산소 자리를 좋은 대기가 넘쳐도록하여 무슨 일이 발복하도록 해줄 수 있고
- 절다, 상가, 사무실 등에 좋은 운기가 계속적으로 넘쳐도록하여 만사형통하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담문의: 대한불교조계종 **보통포교원**(원장 각광)  
부설: 불교바라밀 전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저례3동 581번지 1(한신상가5동5층)  
전화: (051) 864-3740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성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0335) 34-9490, 39-1906  
이전 (0342) 706-3060

**춘 옥산가 옥의 신비를 아십니까?**

우아함과 품위를 살리는 동양의 보석

신경통, 고혈압, 당뇨, 변비, 잇몸질환 등의 난치병을 자유하고 집중력, 판단력, 창의력, 기억력, 아이큐 향상능력을 증대하며 선(善)과 기도에도 좋습니다. 꾸준히 사용에 보십시오

참으로 신기하게도 잘 듣습니다.

\*眞玉은 옥산가에서서만 판매함

\*眞玉은 옥산가에서서만 판매함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 내 난치병 환자들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목련종 93.9%, 진정정환자 92.9%, 미물림환 91.9%, 어지러움환 91.9%, 두통 환 91.9%, 고혈압 환 77.8%, 관상염 환 69.9%] 놀라운 치료효과를 기록한다.

대한 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임상실험  
두통, 불면증, 불안, 손발저림, 소화불량, 한겨울 대상으로 순진연령층을 활용 시키 임상실험 결과 [목련종 84%, 관상염 환 85.9%] 치료효과가 있음유 밝혀졌다 (93.2.17)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보령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天山家** 777-0105  
吳昊宗 醫師

그 마음을 바쳐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지혜를 가로막는 일이니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버리라고 하면 아까울 것이니 그 마음을 바쳐라. 바치는 마음을 연습해서 남을 위해 살고 부처님 시봉하는 삶을 산다면 그 마음이 우주에 가득차서 결국 부처님이 되지 않겠는가. 거기 어디에 내가 있고 또 내가 있는가? 너, 나 없는 그냥 한마음 아닌가.

▷ 앞의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법사의 첫 번째 책 신국문 291쪽/23,800원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진 영원의 행복을 한결을 한결을 디디는 모든 길 가는 이들의 고통과 그 해탈을 위하여

▷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김재웅 법사의 두 번째 책 신국문 273쪽/24,000원

▷ 남·여 직원모집  
남 : 불교용품 취급 유행경자 환영 여 : 활동적인 불자 환영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사진 본인 직접 내사 요망)

**대한불교 조계종 금륜정사**  
(부)한국전통사찰음식 연구소 식품 사업부  
문의전화 : (02)245-0904, 248-0479, 246-6858

연구 및 복지기금마련 **사찰음식 전국특판 및 직매장 모집 안내**

본 연구소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전국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좀 더 연구에 내실을 기함은 물론 전국적으로 사부대중의 복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음식으로 전국에 보급코자 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취급품목  
된장/고추장/떡/무우/산초장/아찌/김부각/참기름/술일종족/연자죽/콩반찬(一名 콩고기)/다시마선식/지리산산적/등굴래차  
그외 다수상품 연구진행중 (각 가정에서 전화 주문해 주시면 즉시 보내드립니다.)

■ 모집지역 : 전국 각 지역  
■ 지원자격 : 산중음식보급에 관심있는 분

▷ 전국취급점

서울:봉은사 516-6610	부일서점 733-5388	사찰매점.신행단체
도계사 738-9466	불이식당 3443-8444	관광지 산채식당
조선사 324-4195	불광사 413-6060	대환영
강남포교원 539-2631	광주:전통의학식품 (062)361-3382	

대한불교 조계종 금륜정사  
(부)한국전통사찰음식 연구소 식품 사업부  
문의전화 : (02)245-0904, 248-0479, 246-6858